장엄한 역사와 다양한 스토리 깃든 '세계를 담은 정물화'

프랑스 기메동양박물관 소장 '책거리'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책거리

정병모 지음

"책거리는 더 이상 고상한 문인 취향의 상징물이 아니요, 서학을 막기 위한 군주의 방편도 아니다. 생활의 표현이자 행복을 염원하는 욕망의 공간이다. 문방에서 시작한 책거리는 원래 책과 물건을 담는 현실 공간이었지만, 점차 현실에서 벗어나 꿈과 이상을 펼치는 상상의 공간으로 변해갔다. 본래의 완상적 혹은 정치적 목적과 달리 장식적이고 길상적인 경향으로 나아간 책거리는, 행복을 상징하는 자연물로 책과 물건을 장식하기 시작했다."(본문 중에서)

정물화하면 대개 세잔이나 고흐 같은 서양화가를 떠올리기 십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도 정물화가 있었다. 조선시대에 서양의 정물화처럼 물건과 꽃이 소재가 아닌 책으로 특화된 그림이 있었다. 바로 조선 후기 유행했던 정물화 '책거리'가 그것이다.

어떤 이들은 책거리 하면 서당의 풍속을 떠올린다. 한 권의 책을 배우고 훈장과 동학들에게 떡과 음식을 대접하는 일 말이다. 그러나 언급한 대로 조선 후기의 정물화인 책거리는 책이 중심 소재다.

한국 책거리의 모든 것을 다룬 책이 출간됐다. '차이나는 클라스'의 스타강사이자 '민화는 민화다'의 저자인 정병모 경주대 초빙교수가 펴낸 '책거리'가 바로 그것. 정 교수는 지금까지 민화의 대중화와 세계화에 힘썼으며 관련 서적을 꾸준히 펴냈다.

저자에 따르면 책거리는 단순히 조선시대 문화유산만이 아닌 세계적인 한국 문화유산이다. 세계 각국의 정물화 중 '책'이라는 키워드가 명칭에 언급된 것은 유일하다는 것이다.

책거리는 책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된 사물이 포함된다. 책을 비롯해 "도자기, 청동기, 꽃, 과일, 기물, 옷 등이 등장한다. 책거리를 영어로 번역하면 'Books and Things'가 된다. 'Scholars' Accoutrements'란 영문 이름도 사용하는데, 이는 책이나 물건보다는 문인들의 우아한 상징물인 문방구를 그린 '문방도'를 가리킨다."

조선에서는 네덜란드 정물화보다 한 세기 늦은 18세기 후반 정물화가 성행했다. 이때부터 시작해 20세기 전반까지 왕부터 일반 서민에 걸쳐 책거리를 폭넓게 향유했다. 예술세계 또한 독특하고 다양할 만큼 인상적인 작품들이 다수 배출됐다.

조선 후기에 이르면서 책거리의 소재가 다양해진다. 이 시기는 한국회화사에서 전환의 시기라 할 만큼 서민의 생활을 다룬 풍속화가 등장했다. 또한 진경산수화도 주목을 받아 자연의 아름다움이 조명을 받았다.

이때부터 책거리 소재는 두루마리, 향로, 안경, 회중시계, 거울, 자, 반짇고리, 거문고 등 이전보다 훨씬 다채로워진다. 당시 유행한 물질문화가 책거리 화폭 속에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다. 또한 청나라에서 수입한 화려한 도자기들과 자명종을 비롯한 서양의 물건도 있다.

그렇다면 왜 책거리가 특별한 존재로 인식됐을까. 조선은 문치국가였으며 책은 선비들이 추구한 정신문화의 정화(精華)였다. 세상을 배우고 받아들이며 다스리는 방편이 책이었다. 책 외의 물건에 대한 선비들의 생각은 물건에 빠지면 고상한 뜻을 잃는다는 '완물상지'(玩物喪志)라는 말로 통용됐다.

이처럼 조선후기에는 책이라는 고고한 소재와 통속적인 물건이 함께 표현됐다. 시대의 양면성을 드러낸 상징적인 풍경이다. 저자는 "겉으로 보면 정신문화와 물질문화가 조화로워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물질문화가 정신문화에 기대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설명한다. 한마디로 '이념의 시대'에서 '물건의 시대'로 옮겨가는 변화의 신호탄인 셈이다.

책거리는 전하는 작품 수로나 예술적 관점으로나 조선후기 회화를 대표할 만하다. 일상적인 물건을 그린 것이 아니라 "장엄한 역사가 펼쳐져 있고 다채로운 스토리가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대항해 시대와 조선후기의 역사가 투영된 '세계를 담은 정물화'이다. 〈다할미디어·2만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프랑스 기메동양박물관 소장 '책거리와 기린'

좋은 말씀 — 맑고 향기롭게 엮음

"행복은 그런 거예요. 넘치면 고마운 줄 몰라요. 넘치는 것이 모자란 것만 못하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조금 모자란 데서 소중함과 고마움을 알게 됩니다. 남보다 적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죽지 않고 생의 기쁨과 순수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부자예요."

우리시대 마지막 큰 어른이었던 법정 스님(1932~2010)의 열반 10주기를 맞아 법문과 강연을 담은 '좋은 말씀'이 출간됐다. 책에는 미출간 법문과 강연이 수록돼 있으며, 평소 스님의 뜻을 이어온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가 엮었다. 지난 1994년부터 2008년까지 우리에게 전해 주었던 법회와 대중 강연이 실려 있다.

법정 스님은 승려이자 수필가였으며 시대를 밝히고자 했던 어른이었다. 또한 불의한 힘에 맞선 개혁가이자 지구의 미래를 위해 길을 열었던 환경운동가이기도 했다. 해방과 휴전 이후 거세게 밀려온 문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전통이 파괴되고 자아를 상실하는 세태를 목격하며 바른 말과 글, 행동으로 대중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 애썼다.

특히 고독과 수행의 끝에서 길어 올린 깨달음의 메아리는 잔잔한 울림을 준다. 스님은 올바르게 살아가고 세상을 치유할 방향을 제시하면서 살아가는 일이란 무언가를 더하고 보태는 것이 아닌 덜어내고 버리는 일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시종일관 나눔을 통해 개별적인 자아가 우주적인 존재로 확장될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스님의 가르침은 시간이 흐를수록 빛을 발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다른 무엇보다 "존재 전체를 기울여 사랑하십시오"라는 말은 모든 이에게 전하는 아름다운 금언에 다름아니다. 〈시공사·1만7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이광형, 카이스트의 시간 — 심재율 지음

'천재 창업가들의 멘토', '존재하지 않는 것을 가르치는 미존학(未存學) 교수', '10년을 앞서가는 미래학자' 등 수많은 수식어로도 그를 다 설명하기엔 역부족이다. 바로 카이스트 이광형 교수의 이야기다.

'어떻게 한 명의 교수가 대학 기부금을 615억 원이나 유치했을까?', '왜 그의 연구실에서 성공한 창업가들이 유독 많이 나왔을까?' 등의 질문에서 시작된 책 '이광형, 카이스트의 시간'이 출간됐다.

책은 전산학과 시절부터 4개의 학과를 개척하기까지, 숱한 반대와 역경을 뚫고 카이스트의 혁신과 변화를 이뤄낸 이 교수의 여정을 정리한 기록이다.

이 교수를 신진 교수 시절부터 취재한 과학기자이자 카이스트 책임연구원을 지낸 저자 심재율은 이 교수 및 그의 동료, 제자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엮어, 성취 뒤에 가려진 이 교수의 고뇌와 분투를 그려냈다.

저자는 열정적이면서 차분하고, 엄격하면서도 따뜻한 그의 다채로운 면면을 '도전가', '혁신가', '멘토', '과학자', '교육가', '퓨처리스트', '리더' 등 7가지로 정의했다.

책에는 한국 1세대 벤처 창업가들을 길러낸 전산학과 시절부터 615억 대학 기부금 유치, 바이오및뇌공학과・문술미래전략대학원 설립, 등이 담겨 있다.

또한 정도경영의 리더십, 포기를 모르는 열정으로 수많은 리더를 길러낸 이 교수의 삶과 공부 그리고 도전의 이야기도 수록돼 있다.

평생 "사회에 진 빚이 매우 크다"고 말해온 이 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당연히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사실 누군가가 인생을 바쳐 만들어낸 것이다"고 전한다. 〈김영사·1만5800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다공예술 — 강수미 지음

'현대미술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스며드는가'

20여년 간 미술현장에서 전시기획자, 미술비평가로 활동하고 있는 강수미(동덕여대 회화과 서양미술이론) 교수가 펴낸 '다공예술'은 '다공'이라는 독특한 개념을 통해 2000~2020년 한국 미술 지도를 총체적으로 조명한 책이다.

문과 통로가 많다는 뜻의 '다공'(多孔)은 미술에 대한 고정관념과 경계를 깬 열린 개념이다. 그에 따르면 미술작품은 더 이상 미술관이나 갤러리에 전시된 미적 대상을 한정하지 않는다. 고전적인 의미인 전시장의 관람객 뿐만 아니라 SNS의 사용자, 개인방송 크리에이터, 상품개발자에 이르기까지 지난 2000년 이후 미술의 외연은 사람과 영역의 구분 없이 우리의 일상 도처에 존재한다. TV 등 대중매체들은 인문학 콘텐츠나 해외여행 등에서 미술을 녹여낸 프로그램을 선보이는가 하면, 연예인·인플루언서들이 아티스트와 콜라보한 상품은 시장에 선풍적인 인기를 얻는다. 이는 곧 예전의 방식으로 현대미술을 감상한다면 필연적으로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즉, 미술이 진화하는 만큼 관람객들의 미술을 읽어내는 시선 역시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강 교수는 현대미술의 사회적, 예술사적, 미술계의 내외적 맥락의 변화를 거시적으로 들여다 본다. 대중의 참여와 개입, 상호작용과 다자간 교류를 수행하는 한국 현대미술의 역동적 변화상을 미술 제도와 기관들, 미술 이론과 미학 이념 면에서 구체적으로 살폈다. 광주 출신으로 지난 2015년 광주비엔날레 혁신위원회 혁신위원을 지내는 등 지역 미술계와도 인연이 깊다. 대표저서로 '포스트크리에이터:현대미술 올드 앤 나우', '비평의 이미지' 등이 있다. 〈글항아리·2만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예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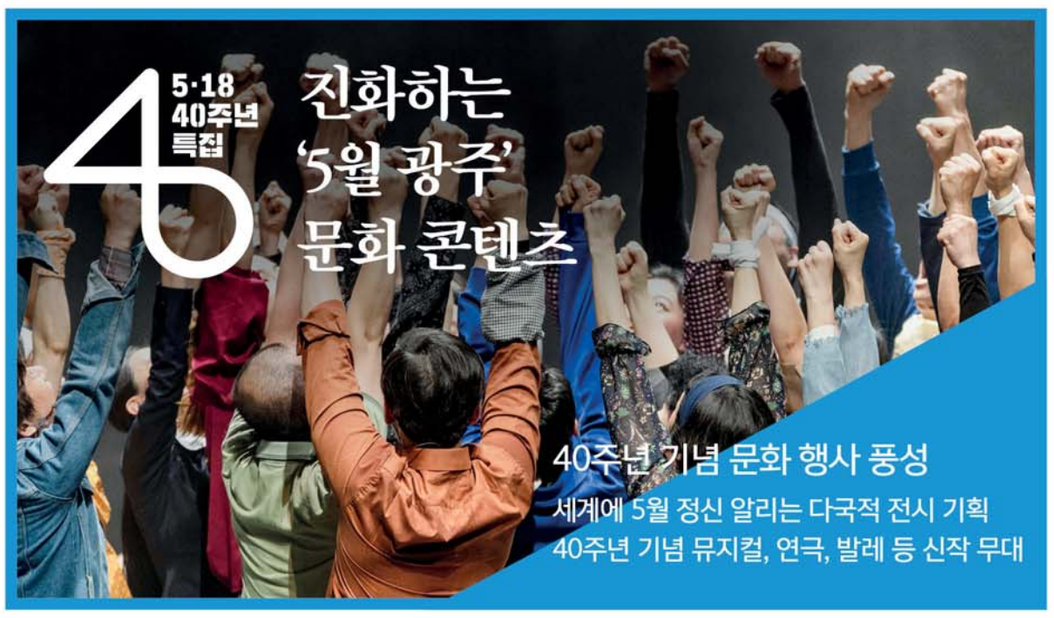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0년 5월호

4월 30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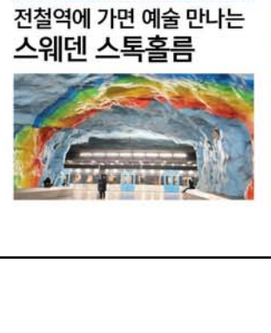
팩 스 : 062-222-0195



클릭, 문화현장⑦-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흙과 건축의 세계 최초 건축도자미술관

워라밸시대, 문화관광이 뜬다⑫
아픈 역사 현장 관광자산으로 베를린 다크투어리즘

예향이 만난 이 사람
KIA타이거즈 2020시즌 지켜낼 필승조 전상현


예향 초대석
호남의병 역사 재정립, 사학자 홍영기
"의로운 사람들, 역사가 기억해야죠"

문향이 숨쉬는 문학관을 찾아서㉘
가사문학의 진수 한자리에 담양 한국가사문학관

머물고 싶은 전남 행복숲①
신안 하의도 '한반도 평화의 숲' DJ 정신을 심은 숲

배국남의 대중문화 X파일⑮
코로나에 직격탄 맞은 대중문화와 연예인

행복한 동행, 반려동물과 함께하개냥③
사랑한다면 등록하세요 반려동물도 '코로나' 걸린다

유현준의 도시건축⑨
코로나19, '핀포인트 방역'이 답이다

문화계 핫 이슈
트로트 열풍 국경을 넘다

김정운의 '바우하우스 이야기'⑩
'공방교육' 체계화시킨 칸딘스키

도시디자인, 행복한 도시 풍경의 완성⑤
전철역에 가면 예술 만나는 스웨덴 스톡홀름